

##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이야기

# 씨엠엔텍

6년 그리고 100억원, 이는 습식 유량계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걸린 결코 짧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다. 해외 어떤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만 이룬 이 성과는 씨엠엔텍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사라질 뻔했다.

초음파 유량계를 최초로 개발했던 창민테크는 2005년부터 시작된 경영 위기 끝에 결국 부도를 맞았다. 초음파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던 터라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떠들썩 몽쳤다. 어찌 보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었다. 당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설립된 회사가 바로 씨엠엔텍이다.

홍대진 대표이사는 지금의 씨엠엔텍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매년 성장하는 회사'라고 설명한다. 좁고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매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에 대한 꿈과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 정확한 유량 측정은 물산업의 기초

"상수도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유수율 제고에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망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정확한 유량을 측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지난해 씨엠엔텍에 새로 부임한 홍대진 대표는 기초적인 물질약에서부터 정확한 정산으로 지자체 수입을 안정화할 수 있는 유수

율 제고야말로 향후 물산업 진행 방향을 정할 근간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상반기 씨엠엔텍은 유량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를 달성하며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최초로 초음파 유량계를 개발한 씨엠엔텍은 음파와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습식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와 음파 수위계 2개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량·수위·압력·온도를 복합적으로 측정하는 다양한 제품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량·수압·온도가 동시에 결합된 복합 유량계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 시장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씨엠엔텍 기술연구소를 이끄는 황상윤 이사는 점점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한발 앞서 예상하고 신제품으로 초절전 유량계나 건식 초음파 유량계 등과 같은 차별화된 제품들을 개발하여 시장을 더욱 넓혀간다는 전략을 밝혔다.

씨엠엔텍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국내에서



### ▶ 한 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아

씨엠엔텍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국내에서 국제공인 교정기관(액체유량) 분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의 성능 평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동종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전국적인 고객 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납품 후 교정 및 유지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40여 명의 직원들이 뜰뜰 뭉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를 만들어낸 씨엠엔텍을 지금의 위치로 이끈 것은 ‘실패’라는 단어였다.

“실패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해보자’라는 오기를 심어 주었고, 현재에 안주하려던 모습을 도전의 자세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실패가 달콤한 약이 된 셈이죠.”

더 큰 성공을 위해 홍대진 대표는 모든 이익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유량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품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한결

같이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씨엠엔텍은 설립 초기부터 자체 개발한 초음파 유량계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다. 지금도 제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매출의 15% 이상을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등 꾸준히 원천기술을 개발해 가고 있다. 신뢰란 말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얻어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씨엠엔텍 회의실 한편에는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독서는 완성된 인간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생각하는 경영, 생각이 있는 경영, 생각을 나누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하고 있다. 어쩌면 실패를 슬기롭게 이겨낸 것도 책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리라. 실패의 아픔을 성장의 달콤함으로 승화시킨 기업, 업계 1위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씨엠엔텍의 본격적인 날갯짓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국제공인 교정기관(액체유량) 분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